

# “봄철 알레르기 질환, 특용작물로 이겨요”

### 농진청, 인삼·오미자·복령의 항알레르기 활성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용작물로 인삼 오미자 복령을 소개하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제안했다.



농촌진흥청은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용작물로 인삼, 오미자, 복령을 소개하고, 조리법을 제안했다. 사진은 인삼오미자차.

단맛이 매콤한 고추장과 잘 어울린다.

오미자는 몸의 에너지나 체액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고 힘이 나게 하며 진액을 생성한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되는 ‘소청룡탕’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 리그난은 항알레르기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약리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미자는 생 열매에 설탕을 넣어 찹을 담거나 밀린 것을 끓여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인삼, 배 꿀을 곁들여 인삼오미자차\*를 만들면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

복령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류로 시중에서는 주로 가루로 판매한다. 복령은 몸의 수분이 정체되는 것을 해소하고 소화가 잘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킨다. 인삼과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

에 처방하는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복령의 주요 성분은 트리테르펜, 다당류, 스테로이드 등으로 특히 껍질의 뛰어난 항알레르기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복령은 예로부터 떡 재료로 쓰였으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맷쌀에 복령 가루를 넣은 ‘복령떡’이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도 검정콩(서리태)을 곁들여 찌면 색감과 맛이 좋은 ‘복령서리태사투떡’을 만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특용작물은 효능이 다양하고 응용 범위가 넓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특용작물을 활용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다스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은 전북인삼농협과 함께 ‘삼·삼(蔘蔘)데이’를 앞두고 2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인삼으로 온 국민을 건강하게 를 슬로건으로 인삼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 ‘전북 인삼으로 온 국민을 건강하게’

### 전북농협·인삼농협, 전북자치도청서 ‘삼·삼(蔘蔘)데이’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과 함께 ‘삼·삼(蔘蔘)데이’를 앞두고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인삼으로 온 국민을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인삼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전용태 전북도의원, 김영일 전북농협본부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조합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출근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원과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수삼(1,200뿌리)과 홍삼캡슐(4,000개) 및 홍삼쿠키 등 꾸러미를 나눠주며 전북인삼 우수성 홍보와 애용을 부탁했다.

특히, 이날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으로 새로운 전북 특별 한 기회 라는 슬로건에 맞춰 특별

한 전북인삼 홍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응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전북농협은 주요 시기별 전북인삼작가 재배 및 임직원 인삼 특산 행사, 농협가족 홍삼스틱 1일 1포 1년 내내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환경기 국민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인성 조합장은 “최근 계속되는 인삼시세 하락 및 인삼소비부진, 인삼 경영비 증가로 인해 인삼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향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전북개발공사, 친환경 경영 도민과 함께 ESG경영 선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2024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작년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주요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ESG 전략과 총 38개 새롭게 발굴하였고 연내 발굴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발전사업 △건설 사업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제로에너지 건축물·복합건축 인증 △사회공헌 사업 확대 △한미음식산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도입 △인원 영향평가 △인명 사고센터 운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행 등 친환경 경영(Environment) 10개, 사회(Social) 18개, 지배구조(Governance) 10개 총 38개 과제를 발굴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ESG 경영 확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 성장 동력이 되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지하수자원관리사업 본격 착수

#### 중요로운 물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대책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농어촌지역 지하수 체계적 보전관리와 지속적 개발·이용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계획 수립 위한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을 착수했다.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은 농촌지하수 관리, 해수침투조사, 관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농수구역의 지하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용수이용 및 오염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2008년부터 시작해 총 42개 용수구역 중 지난해까지 36개 용수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금년에는 김부지구(정읍시 신태인읍

등 3개면, 김제시 부량면), 동안지구(무주군 안성면, 진안군 동향면)를 대상으로 “2024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사업비 4억9천만원)”을 시행한다.

특히, 시·군·읍·면 단위의 지하수고갈, 도서·산간지역의 국지적 가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 순환형 수자원(지하수, 지표수, 하천 등)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정문 본부장은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은 농어촌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내 최고의 지하수전문기관인 우리 공사가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어촌 물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성과물은 농어촌지하수관리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을 착수했다.

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농어민에게 제공된다. 농어촌지역의 수량고갈,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보전관리대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 농식품부, 김제농협 공수매·비축 현장 방문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6일 김제시 명덕동 767-4에 위치한 공선별장에서 공 농가와 소통 강화 및 국산 공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정용 김제농협조합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AI식량지급관리과장, 농관원 김제사무소장 등과 농협공수매, 수매 참여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애로·건의 사항 등의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

이정용 조합장은 “두류 수매기간 시작일을 12월이 아닌 11월 초로 앞당겨 주고, 수매 회차를 증대하여 재배 물량 전량을 수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매입한도량을 증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약정기간 연장 및 수매 한도량 내 지을 수매 가능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선정 기준이 200평 이상으로 되어있는 두류 비축 창고 선정 기준도 100평으로 완화하여 생산·유통인 농협에서도 직접 비축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